

회원들간 친목 유난히 뛰어난 거·창·지·부

- 취재 : 조 진 현 -



▲지난 '97년 11월 17일 화재농가에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낙심하지 말게, 우리가 도와줍세”

경남 거창의 양돈장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하였다.

지난 '97년 10월 27일 새벽 거창읍 중앙동에 위치한 박한열씨 육성돈사에 불이 나 700여두가 폐사하였는가 하면, 사흘 뒤 10월 30일에는 박한열씨 농장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거창 주상면의 박대열씨 농장 분만돈사에 불이 나 180두의 모돈과 포유자돈, 이유자돈 등이 폐사하고 옆동의 육성돈사의 전기마저 끊겨 육성돈 150두가 질식사하는 사고까지 당하게 되어 양돈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으며, 그 후 열흘 뒤 또 다른 곳인 김규석씨 농장에서 또 한번의 화재가 발생했다.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다. 본인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멀리서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그 피해가 적지 않음을 알고 혀를 찰 뿐이었다.

그러나 그후 10일이 지나지 않아 지난 '97년 11월 11일 8천5백만원이라는 작지않은 돈이 격려하는 말과함께 세 농가에 피해정도에 따라 전해졌다.

회원들의 돈독한 정이 돋보여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최영렬 지부장을 비롯한 양돈협회 회원 30여명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의 불행인 양 200~500만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놓은 것이다. 보통 기껏해야 1~2백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모아 주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양돈협회 거창지부의 회원간의 친목이 얼마나 돈독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찌 그 돈독한 회원의 정이 돈을 모아 줌에 그치겠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복구작업에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동참하고 도와주니 그 훈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거창군수를 비롯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토록 회원들간의 친목이 남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모인의 설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양돈인이자 누구나 기억할 '89년 양돈불황을 겪으면서 거창의 양돈인들은 양돈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각조각 떠 다니던 쉼 여섯 양돈농가

가 '거창 양돈회'란 배를 만들고 드넓은 파도를 당당히 헤쳐 나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뜻을 이어간 최영렬 지부장의 노력도 작지 않다 하겠다. 이번에 이런일을 이루어 낸 것이 선례가 되어 회원들은 제도적은 아니지만 협회란 큰 보함에 가입돼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근심없이 양돈업에 종사할 있게 되었음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주위의 도움이 화재를 당한 세 양돈농가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박한열씨와 박대열씨 농장의 경우는 회원들중 처음으로 2곳 무창돈사를 만든 곳으로써 금년초에 준공검사를 받아 11월에 비육돈 출하를 할 예정이어서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한다. 주위의 격려에 힘입은 본인들의 새로운 투지만이 이 불행을 완전히 극복해 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협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최영렬 거창지부장

모범적인 지부답게 항상 앞서가는 사업실천

이 겨울, 훈훈한 이야기가 길어지다보니 거창지부의 지부활동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지 모르나, 실제로 앞서말한 이런 일들이 어찌면 많은 지부활동의 결과가 누적되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지부는 모범적인 지부답게 '90년대초 다른 양돈인들의 선두에 서서 톱밥제조기, 분뇨수거차량, 저장조 등을 구비하여 무배출을 시작하여 지금도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적으며, '92년부터는 매년 9월 거창지부가 중심이 되어 5개시군(거창, 함정, 함양, 산청, 진수)이 "서부경남 양돈인대회"를 개최하여 현재 6회에 이



▲거창군수, 여러 양돈인들과 함께 한 선진지 견학



▲ '97년 7월 양돈방역 사업단 발대식날

른다고 한다. 또한, '95년에는 정부의 경쟁력 재고사업에 재빠르게 발맞추어 원료(사료)를 현금 구매하고 있어 더욱 싸게 원료를 구입하는 한편, 회원들의 자발적인 투자로 방역사업단을 운영하여 가축위생시험소와 공동으로 콜레라등 질병 청정화에 노력해 내년에는 거창돼지의 청정화를 인정받아 브랜드화를 할 계획까지 있다고 한다.

회원들은 '90년대에 들면서 양돈농가 호수는 줄고, 규모는 커져 전업화되었으며 90%가량 수 출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특색에 맞고, 지킬 것은 지킨다는 사양관리로 90%가 A, B등급을 받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젊은 양돈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양돈 이끌어

거창지부는 초대 김영수 지부장, 2대 김종출 지부장으로 이어왔으며, 현 최영렬 지부장은 거창지부 초대 총무, 2대 부지부장, 현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96년에는 대통령상인 '새양축가상'을 받는 등 젊은 양돈인들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양돈수준(사양수준)과 양돈인의 의식을 높히는데 회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경쟁력을 갖춘 양돈농가로 발

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거창지부도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황강치수장 건립이 계획되고 있어 양돈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거창 양돈단지 등 대규모 양돈단지가 생겨 협회의 위상이 위축되고 지부의 결속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었다.

지부장은 현재 협회의 직접적 지원이 적어 회원의 부담이 크고, 지부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자조금 사업이 하루바빠 이루어져 힘있는 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養豚**

본지 캠페인

샘처럼 솟는 힘, 돼지고기 먹은 힘